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2012 vol.012



은행이 규모보다 커야할 것은 고객 사랑의 깊이입니다

경남은행이 하나 둘 늘어간다는 것은
영남지역의 자산도 하나 둘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행복한 은행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행복한 은행!
혼자 꿈꾸는 은행이 아니라, 영남과 함께 꿈꾸는 은행!

영남을 대표하는 경남은행의 힘찬 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경남은행

소나기속에 소중한 우산처럼....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CULTURE FOR ALL

메세나(Mecenat)는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하며 고대 로마
제국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데 앞장서
로마문화 번영에 큰 역할을 했던 재상 마에케나스(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

정일근

곡우 오길 기다리며 연초록 작은 혀를 푸는
지리산 화개동 야생 작설(雀舌)들의 착한 소리

어머니 섬진강을 찾아 되돌아오는
은어들의 눈부신 하얀 속살 같은 그리운 소리

산과 강 사이 젖가슴 펼쳐
땅 속 어린것들에게 봄 별판이 새 짓 물리는 건강한 소리

그리운 동해바다 봄 도다리 뺏속 가득 새 살 차고
새 살 가득 새 뼈 돌는 맛있는 소리

저녁 밥상 곁으로 둘러앉은 식구(食口)들
더운 밥숟갈 달그락거리는 정겨운 소리

정일근

58년 경남 진해출생. 경남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졸업. 84년 『실천문학』과 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소월시문학상. 영랑문학상. 지훈상. 이육사시문학상 수상. 시집 『바다가 보이는 교실』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 『그리는 곳으로 돌아보라』 『기다린다는 것에 대하여』 『사과야 미안하다』 등. 현재 경남대학교수



GYEONGNAM INTERNATIONAL ART FAIR 2012 GIAF

2012 경남국제아트페어

2012. 6. 28(목) ~ 7. 1(일)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 제2전시장

주최 : 경상남도 창원시
주관 : (사)경남미술협회, (사)경남메세나협의회, 경남신문, 창원컨벤션센터
후원 : (사)한국미술협회, 경남예총

CONTENTS

Gyeongnam Mecenat 2012 Vol.012

Letter

- 08 2011 경남메세나대회 REVIEW
경남메세나 2012 정기총회
- 10 2012 정기총회 SKETCH
- 14 협회장 인사말
- 16 경남메세나와 함께하는 바리톤 김동규 초청 콘서트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 22 상남굿모닝내과 직원사진展
- 24 경남은행 응남점 개점식



Human

- 26 길 위의 풍경
ARTS & BUSINESS
- 28 동행 _ 신임 부회장 (주)무학 최재호 회장
- 30 우리가족 메세나 _ KAI 황성철 차장 가족
- 32 메세나개론 _ 창원대학교 <메세나개론>강의
문화나눔
- 34 LOVE TICKET _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무지개 크리스마스



Culture

- 36 예술과 삶 _ 소설가 나림 이병주
문화산책
- 42 우리지역 예술탐방 I _ 마산 구산면 일대
- 44 우리지역 예술탐방 II _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 46 문화파발마 _ 경남오페라단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 48 공연전시 PREVIEW
- 50 경남메세나협의회 후원사업 _ 제30회 경남연극제 & 경남국제아트페어



2011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2011

기업과 문화의 어울림으로 행복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
“2011 경남메세나대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12월 6일 저녁, 문득 올려다 본 하늘이 얼음처럼 투명하다. 머릿결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시린 바람. 의외로 상쾌하다. 2011 경남메세나대회가 열리는 창원인터내셔널호텔, 정원에 늘어선 나무들이 눈에 들어온다. 마지막 한 잎까지 다 벗어버린 마른 나무들이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난다. 연말을 밝히는 꼬마전구들의 불빛이 따스하게 다가온다. 차들이 속속 모여든다. 창원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볼룸엔 취재진과 참석자들이 미리부터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짙은 행사장은 식전부터 훈훈함이 넘쳐 흐른다. 가곡전수관의 국악연주단 정음의 식전공연으로 행사의 막이 올랐다. 거문고 독주곡 '출강' 과 R&B스타일의 경기민요 '도화 널 그리며' 가 연주되었다. 기타와 북, 거문고가 묘하게 잘 어울린다.

이날 경남메세나협의회 박영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세나 실무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변화·발전해가는 메세나에 대한 격려와 함께 회원들의 조언과 관심을

당부했다. 우리지역이 가진 숨은 인재와 문화예술을 찾아내는 것이 세계화로 가는 길임을 강조하며, 우리지역 예술인들을 해외에 모셔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경남메세나의 명예회장인 김두관 도지사는 메세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미안함을 전하며 경남메세나에 참가하고 있는 경남지역 기업들의 문화에 대한 애정이나 지원 정도는 전국 최고라고 했다. 또한 중세 이태리의 문예부흥을 위해 애쓴 메디치 가문의 일화를 소개하고, 경남메세나가 경남의 문예부흥을 이루는 데 앞장선다며 수상한 기업대표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다음으로 허기도 의장의 축사와 메세나 심사위원장의 심사 보고가 끝난 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메세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대상은 무림페이퍼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으며 지역문화 공헌상에는 the큰병원, 공로상에는 삼원테크주식회사, Arts&Business상에는 주식회사 화영과 김금희무용단, 경남메세나인상에는 정찬희 경남오페라단 단장, 경남은행 문화예술 영재상에는 첼로 전공의 김지연 학생(선화예고3)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상을 받은 무림페이퍼 김인중 대표이사는 결연단체인 진주챔버오케스트라에 감사를 표했다. 24시간 기계가 돌아가는 제지공장의 소음 속에서 귀마개로 하루를 보내지만 메세나 협약 후 기계소리를 대신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경남메세나인상을 받은 정찬희 경남오페라단장은 많은 분들과 메세나에 대한 고민을 나누던 90년대를 회상하며, 4년 만의 비약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질적 성장을 다짐했다. Arts&Business상을 받은 (주)화영의 이홍원 대표는 밀양지역의 대표적인 메세나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준 '김금희 무용단'과의 인연을 회상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나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화영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이 클래식 공연장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동화되어 음악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여기, 기업과 문화의 어울림으로 행복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 “2011 경남메세나대회”에서

우리는 클래식이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팝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문화예술영재상을 수상한 김지연 학생과 코리안드림심포니에타가 호흡을 맞추어 환상적인 첼로 협연을 펼친 것이다. 작은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우아하고 묵직한 첼로 선율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전해졌다. 예술의 가치를 알고,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날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예술 활동을 해 왔다. 누구는 곡을 썼을 것이고 누군가는 연주를 하고 또 누군가들은 그 연주를 들으며 다시 그 음악을 살려낸다. 오늘 김지연 양의 연주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예술 활동에 동참을 한 것이다. 예술의 연속성에 한 몫을 했다는 뿌듯함. 2011 경남메세나대회는 많은 이들의 2011년 다이어리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GYEONGNAM MECENAT 2012 정기총회

텃밭 농사가 유행이다. 오래 벼르던 끝에 네모난 화분을 하나 장만해서 말려두었던 고추씨를 뿌리고는 베란다에 내다 놓았다. 매일 물을 주며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았다. 씨앗을 씻고 말리며 괜스레 분주했던 몇 날과 싹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웠던 시간들을 보내며 스스로 한심한 기분도 들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다. 모든 사물에는 '근본'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일의 결과를 농사에 비유했던 우리네 조상들의 지혜를 새삼 깨달았다. 그렇다 '農者天下之大本'. 여기,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2012년 2월 22일 오후. 자문위원, 협의회 임원진과 회원, 예술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5아트센터에서 경남메세나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2012년, 2월 22일 오후

박영빈 회장은 먼저 2007년 창립 이래 해마다 많은 발전을 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성공한 지역메세나로 자리 잡도록 힘쓴 메세나 회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또한 “2012년은 경남메세나협의회 180여개 회원사의 임원을 담아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총회 때마다 개최하는 문화공연을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공연, 메세나 회원사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으로 격상시켜 품격 있는 ‘메세나 회원의 날’ 행사로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대신한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축사에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양성하게 활동하는 경남메세나를 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해 사업결과 보고와 함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핵심사업인 ‘기업과 예술의 만남’의 경우, 기존의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협의회 자체 매칭펀드 결연사업비 1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적인 규모의 문화예술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메세나 주관행사에 더 많은 도민을 초청하고, CEO를 위한 문화특강 등 문화예술이 흠뻑 묻어나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임원 선임의 건. 신임 부회장으로는 최재호 (주)무학 회장이 선임되고, 이사에 윤상기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박태훈 경남은행 본부장이 선임됐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상연 (주)경한코리아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재선임 됐고, 김의수 한림건설(주) 대표이사, 이인호 경남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정상민 경남에너지(주) 경영관리본부장이 각각 이사로 재선임 됐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2007년 창립 이후 현재 180여 개 회원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사업, 회원기업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소외이웃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기업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그런 때일수록 나눔과 상생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남의 기업들이 메세나 정신으로 진정한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를 이뤄나가자”는 박영빈 경남메세나 협의회 회장의 다짐으로 2012년 2월 정기총회는 마무리 되었다.

WELCOME TO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협의회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경남의 경제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업가 및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모토로 2007년 10월에 공식 출범한 경남메세나협의회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사업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경남은 통영국제음악제를 비롯, 각종 국제연극제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독특한 색깔을 가진 양질의 문화컨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남의 기업들이 문화예술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경남의 문화예술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프랑스 문화비평가 기소르망은 경제교류가 상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주고받는 것이라며 ‘문화적 부가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산하면 금융이나 실물자산을 떠올리기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자산으로 문화자산이 있습니다. 문화자산은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벌써 기발함, 다양성, 풍부한 상상력이 기반이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 속에서 기업과 문화예술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분명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경남의 미래를 약속해 줄 것입니다. 우리 경남의 기업들은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경영으로 성장을 가속화하고 문화예술은 기업의 동반자가 되어 예술적 역량을 드높여 아름다운 문화경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앞으로도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기업과 문화예술의 든든한 징검다리 가 되어 활발하고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로 행복한 경남 만들기’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 경남은행장 박 영 빈

박 영 빈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Kim Dong Kyu Gyeongnam Mecenat Concert

경남메세나와 함께하는 바리톤 김동규 초청 콘서트

나의 다정한 여인

역겹의 반복이니 윤희를 믿는 이도 있을 것이고 아닌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적 믿음을 떠나 가끔, 궁금해진다. 기억에 없는 수천 년 전 그때의 나는, 어떤 사랑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바람을 타고 봄이 말을 걸어온다. 나의 다정한 여인에게 사랑을 속삭여보라고...



유쾌한 아름다움에 취한 봄 밤

오페라 말만 들어도 왠지 어렵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좌석예매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성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궁금해 하며 공연장을 향했다. 2012년 2월 22일 저녁시간,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부모를 동반한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부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이다.

딱 찬 3·15아트센터 소극장.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는 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근감 있는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이다. '나의 다정한 여인'에 걸맞게 오페라 아리아에서부터 뮤지컬과 가곡과 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세레나데로 못 사람들의 사랑에 문을 두드린다. 첫 곡은 G.GIORDANI의 CARO MIO BEN(나의 다정한 여인). 노랫말 한 구절 한 구절 뜻을 알려주고 또 스스럼없이 같이 부르자 권하며 선창한다. 그 날 저녁, 경남 도민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성악가의 노래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했다.

그리고 소프라노 도희선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 곡, '얼굴'을 들으며 새로운 아름다움에 눈 떴다. 수많은 이들이 스스로 작곡자라 하기도 했던 이 노래는 1967년 어느 교무실에서 만들어 졌다. 아침 교무회의 시간, 교장선생님의 말이 지루하게 느껴진 생물교사 심봉석씨가 음악교사 신귀복씨에게 소근 됐다. "교장 선생님 이야기 따분한데, 애인 생각하면서 노래나 하나 지을까? 제목은 <얼굴>어때?" "좋아 가사는 심 선생이 써, 나는 곡 지어서 나중에 연결해 보자."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든 아름다운 곡 때문에 이 건장한 두 청년교사들은 결혼 후, 바가지 좀 굶었다는 후문이 있다. 그 동그라미가 누구 얼굴이냐고.



아리랑을 들으며 희망을 꿈꾸다.

아리랑... 이 말 만큼 우리 민족의 가슴을 흔들어대는 단어가 있을까? 지역마다 다양한 아리랑으로 한을 노래한다. 그리고 세월 지나 새로운 아리랑이 나왔다. 그래서 신 아리랑이라 부른다. 양명문 시, 김동진 작곡의 新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짜리문 여잡고 기다리는가 기러긴 달밤을 줄져 간다. 모란꽃 필적에 정다웁게 만난 이 흰국화 시들듯 시들어도 안오네. 서산엔 달도 지고 홀로 안타까운데 가슴에 얽힌 정 풀어볼 길 없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바리톤 김동규의 新아리랑은 카타르시스이고 희망이었다. 한스런 아리랑에 매여 잦아드는 인생이 아닌, 시원한 한 풀이 뒤에 새로운 꿈을 꾸게 했다.

그리고 잊지 못할 다양한 곡들, HANDEL의 오페라 RINALDO(리날도)의 아리아 LASCIA CH'IO PIANGA(울게하소서), W.A.MOZART(모차르트)의 오페라 DON GIOVANNI(돈조반니)중 DEH VIENI ALLA FINESTRA(그대여 창가로 오라)와 LA CI DAREM LA MANO (그대여 손을 주오), 보리밭, A.L.WEBBER(웨버)의 ALL I ASK OF YOU, R. CARDILLO(카르딜로) CORE 'NGRATO(무정한 마음)등을 들으며 생각한다.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사랑에 취하고 봄에 취하고 유쾌한 남자에 취한 밤이다.



Thanks For The Nice Presents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감동...

양코르에 양코르에 계속 이어진 공연. 그러다보니 공연도 약속시간보다 늦게 끝났다. 10시 즈음, 길어진 공연을 보고 나오는 관객들의 얼굴에 만족한 웃음이 가득했다.

메세나에서 좋은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는 로템의 집 이민지 선생님, 그리고

다문화 가정 초청으로 엄마와 함께 왔다는 창원 가음정의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은 2년여 바이올린을 전공한 '음악도' 라고 한다. 조금 낯선 외출이었지만 엄마와 음악회에 오는 것에 대한 기대도 컸고 공부도 된 것 같다는 여학생. 엄마 닮아 그런지 참 예쁘다. 태국에서 온지 15년째인 어머니는 "TV로만 보던 성악가 선생님이 오신다니 더 기뻐다. 딸아이는 음악을 전공하지만 나도 아들도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달려왔다." 며 뿌듯해한다.

김동규님 이름만 듣고도 행복하다.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한번 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 음악으로 맛을 볼 수 있어 좋았다.는 신마산의 30대 주부와 어릴 적 친구 사이라는 50대 후반의 진해어머니들...

형식적인 설명이 아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하는 곡 설명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관객을 휘어잡는 그의 무대 매너에, 전문가와 초보자를 막론하고 친구와 가족 간에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다.

공연 초반 사회자는 경남지역민이란 자부심을 가지라 했다. 경남메세나의 왕성한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맞다. 오늘 행사만 해도 그렇다. 메세나회원사와 참여단체가 누리는 문화공연이 아닌, 도민과 함께하는 공연이었기에 더 유쾌하고 더 뿌듯했다. 수 백 년 전의 세레나데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듯, 올해로 5년째 접어드는 경남메세나도 오랜 세월 거듭하며 문화예술의 뿌리를 더 굳건히 내리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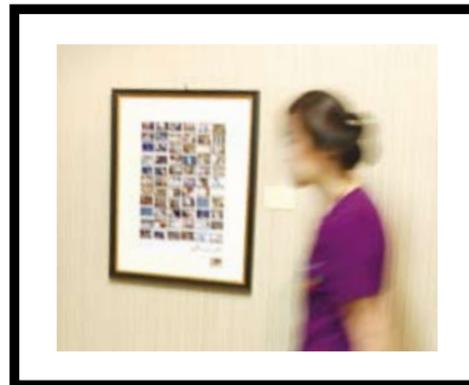


Photo Exhibition



사진전이 열리는 병원 상남굿모닝내과

6층이라고 써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곧이어 도착한 6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그런데 병원이 아니다. 탁 트인 베란다와 티 테이블이 보이고 벽엔 단번에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 걸려있다. 실내지만 실내 같지 않은 분위기... 따뜻한 온기 느껴지는 차 한 잔 있다면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꽤 괜찮을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병원 로비에서...



화랑 같은 병원

7층에 올라가 본다. 병동 로비엔 작지 않은 실내정원이 꾸며져 있다. 사진전이 열린다고 들었지만 설치전시를 해도 가능할 만큼의 공간에 가슴이 시원하다. 전문 갤러리 못지않은 이 공간은 처음부터 예상한 것일까? 역시! 이창렬 원장이 처음부터 갤러리를 겸하고자 기획한 것이라 한다. 그렇게 만든 곳, 더 좋은 아이디어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 직원사진전이 태어났다.



유명작가들의 작품도 좋지만 직원들의 작품이 걸리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었다.

창원 상남굿모닝내과와 메세나로 매칭된 경남영화협회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영화 상영을 하지만 메세나 지원 기업에 대한 고마움에 더 보답하고 싶었다. 본디 영화란 것이 종합예술이니 못하는 분야가 없다. 그래서 주 1회씩 8회, 두 달 동안 병원 직원들에게 사진 수업을 하며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갔다.

직장을 돌아보는 시간

사진은 작가의 눈을 통해 본 세상과 관객을 이어주는 예술 행위다. 예술이라고는 하지만 사진만큼 대중적인 예술도 없다. 사실 사진 못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사진이란 게, 찍을수록 궁금해진다. 제대로 찍고 있는 건지 하는... 그래서 구도 잡는 법부터 배웠다. 여백을 남기는 법을 배우고 주제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서로에게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살 맞대고 사는 가족도 아닌, 직장동료로만 봐 오던 이에 게 포즈를 취하고 있거란 참... 그런 멧찍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들은 이제 가족처럼 친밀해졌다. 눈가 주름부터 주근깨 하나까지 보여주며 자신을 드러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 준비된 시간, 참 잘 써먹었다.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서로의 사진을 모니터하는 시간도 즐거웠고 잘 찍어진 작가들의 사진을 보고 해설을 들으며 더 알찬 시간을 보냈다 한다.

현재 순간을 영원으로 기록하는 작업

사진 그 속에 내가 생활하는 직장의 모습을 담았다. 직원은 내 작품이 전시되어 뿌듯하고 환자는 직원들의 색다른 모습을 보며 더 가까워졌다. 멋진 사진을 찍고픈 갈증이 일상의 고단함도 날려 보냈다. 사진은 그렇게 나를, 내 동료를, 내 직장을 더 새롭게 관찰하고 자세히 바라보게 해주었다. 연인처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쓰다듬는 시간 속에서...



Opening Ceremony



문화를 결들인 경남은행 웅남점 개점식

대한민국 경제중심 창원의 심장, 천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웅남에 온전히 기업을 위한 은행지점이 문을 열었다. 모든 일엔 전문가가 필요하듯, 기업에도 기업에 맞는 전문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다. 2012년 2월 16일,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문을 연 경남은행 웅남기업금융지점의 문화를 결들인 개점 행사를 찾았다.



지신밟기

끝없이 이어지며 분주했던 공단 출근길이 어느새 흰하다. 가끔씩, 쉼~하고 지나가는 차 소리에 그곳이 도로인가 싶다. 한산한 오전시간, 참 조용하다 싶은 웅남동 창원국가산업단지 앞길이 한순간에 시끌벅적해진다.

경남은행 웅남기업금융지점 개점을 축하하는 문화두레 '어처구니'의 앞선 지신밟기로 온 동네가 흥겨움에 잠긴다. 잔칫집답다.

그렇게 한 눈 팔고 있는 사이에도 분주히 오가며 이것저것 챙기는 이가 있다는 걸 느꼈다. 다들 알아서 맡은 일 하겠거니 하지않고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는 것 같다. 슬쩍, 가슴에 붙은 네임택을 보았다. 김상돈 웅남기업금융지점장이라고 적혀 있다. 김상돈 지점장의 바쁜 시간을 살짝 뺏았다. "지신밟기를 통해 우리 웅남지점이 번창하기를 속원한다." 며 간밤엔 웅남점의 직원들이 모여 고사도 지냈다고 한다. "문화행사를 좋아해 과거 울산지역에선 울산 한 대학 동아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박영빈 경남은행장님이 회장으로 계신 메세나협회가 있어서 기쁘다. 이 지역의 활발한 문화 행사를 위해 문화두레 어처구니와 경남챔버스사이어티를 모셨다." 고 하는 김상돈 지점장은 "민가보다 삭막할 수 있는 공단지역이기에 이러한 문화행사가 더욱 빛을 발할 것 같다" 며 향후 공단지역의 고객들을 모셔 놓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가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남챔버스사이어티의 현악 4중주

식순에 따라 진행되는 행사는 어디서나 그렇듯 딱딱하다. 하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한껏 밝았다. 이렇게 경쾌한 분위기로 행사를 이어가게 된 데에는 숨은 공신이 있다. 바로 경남챔버스사이어티의 현악 4중주 멤버다. 2000년, 경남의 실내악 활성화를 위해 역량있는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결성된 단체다. 이날 참석한 박현영 첼리스트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음악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기업의 일을 우리가 같이 돕고 즐겁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며 작곡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동과 음악적 성취도를 위한 공연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배경음악, 즐기는 위주의 음악을 연주했다. 그런 만큼 함께 즐기는 마음으로 연주했다며 웃는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희유곡 嬉遊曲)와 한국민요모듬 등의 가벼운 소품위주로, 비록 작품성을 강조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경남챔버스사이어티의 현악 4중주 그들 때문에 이날 행사가 한층 격조 높아졌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사랑의 나눔행사

큰절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웅남기업금융지점 전 직원의 진심과 수많은 이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이루어진 이날 개점 행사에는 개점기념 이웃돕기 쌀 전달식도 있었다. 10kg 쌀 500포. 경남은행 웅남기업금융지점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그 쌀은 아마 필요한 곳으로 가 허기진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며 많은 소임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세월과 함께 다시 문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경남은행 웅남기업금융지점으로 향할 것임을 믿는다. 시작 무렵, 지신 밟던 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생생해진다. '들어가요 들어가오 수북만복이 들어가오...'



돌아갈 곳이 있으면 인생은 여행이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입니다.
돌아갈 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봄을 향해 알뜰 내미는 꽃. 내가 더 반가워하는 것 같다.

ART MECENAT + MUHAK BUSINESS

경남메세나협의회 신임 부회장 (주)무학 최재호 회장을 만나다

좋은데이
화이트소주
매실마을
가을국화
막골리네
페스티발삼페인

(주)무학은 1929년 설립 이래
올해 83주년을 맞이하는
동남권 최대 종합주류 제조회사
입니다. 국내소주시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주업계 3위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주)무학 최재호 회장



INTERVIEW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경남메세나협의회와 손 잡은 (주)무학을 들여다본다

Q 경남메세나협의회 부회장으로 임
회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문화의 발전은 문화예술단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문화예술단체의 활
동을 보고 대중이 감흥을 느낄 수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향
토기업으로서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좋은데이사회공헌재
단을 통해 문화예술활동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대중과 함께 성장해온 회사인 만
큼 대중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감흥을 느끼므
로서 사회가 성장하는 데 미약하나마 기여하
고자 하는 동시에,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우리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위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힘을 보태어 명실공히 대한민
국 최고의 메세나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Q 대학생 미술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과거 우리 지역에는 이은상, 반야월, 문신
등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이나 교류가 활
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순수 예술에
대한 터전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좋은
데이미술대전은 기성작가가 아닌 부산·울
산·경남의 젊은 미술인들에게 건전한 창작
풍토를 고취하고, 미래의 신진작가를 발굴하
기 위한 지역예술인 양성프로젝트입니다. 그
동안 한국미술 내일의 주역인 젊은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미술 공모전과 전시
기회가 적었던 대학생들의 입상작을 창원, 부
산의 전문 전시관에서 3회에 걸쳐 순회 전시
를 실시하였고, 지역민에게는 청년들의 신선
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예술문화 발전을 기여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Q 그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회공헌 활동들이 많습
니다. 소개 해주신다면요?

A 무학은 창사 이래 예술경영과 기업이익
의 사회 환원이란 가치 아래 연중 다양한 문
화행사를 후원하거나, 직접 기획하고 있습니
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임직원 및 소외계층
문화생활 지원, 지역 예술인 양성과 지원 프
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이문세
HAPPY콘서트」, 「가족 뮤지컬 피터팬」, 「중
은데이 솜사탕아트홀」 상설연극공연장 개관
을 통해 임직원 및 소외계층에게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무학 문화의 거
리 조성, 대학생 미술 공모전을 마련하였고,
좋은데이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지역문화행사
(경남오페라단, 창원문인협회, 문자문명전 등)
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활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A 문화는 지역과 기업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지역과 상생하는 측면에서 기
업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
에서도 소명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지역 예술단체에게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었
고,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에서 지역예술 발전
을 위해 더 많은 메세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좋은데이사회공헌재단의 기
금을 내년까지 125억원으로 늘려 지역예술
단체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든든한 메세나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경남메세나가 만난 특별한 가족

MECENAT FAMILY

올해 겨울방학은 너무 길었나 보다. 화려한 봄이 새싹 틔우듯 은손이네 가족도 봄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섬진강 매화축제, 신수유꽃, 벚꽃축제를 돌아 4월엔 함안 연극제가 기대된다는, 문화·예술과 잘 어울리는 가족! 봄의 길목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황성철 차장 가족을 만났다.



LOVE

기한테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내 정미성 씨가 데이트 시간이 부족할 때 황성철 차장에게 보냈던 이메일 내용이야. 문화와 교육의 도시 진주에 태어난 황차장 부부는 짝이 나면 남강변 문화예술회관에 들러 콘서트나 연극, 전시회를 보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한다. 이제는 시간의 여유가 생겨서일까? 주말에 이웃가족들과 나들이할 때도 좋은 장소와 공연 일정 등 미리 계획을 짜고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황차장.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가족답게 취재를 위해 경남메세나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에도 창원도서관 인형극 관람을 비롯해 여러 가지 멋진 문화나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여느 아빠들처럼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곳을 찾아 다니는 황차장 가족. 무조건적 주입식 교육보다는 직접 몸으로 접하는 체험교육과 그런 엄마, 아빠의 열정이 어우러져 은손이와 원영이는 이해력 뛰어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로 자랐다.



PRESENT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가시고기>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황차장 가족은 경남메세나협회의 초청으로 연극사랑 장원아트홀을 찾았다. 극단 미소의 연극 '가시고기' 를 보기 위해서였다. 책으로 읽어주었던 '가시고기' 를 딸 은손이와 아들 원영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다. 사실 평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황차장은 이번 기회에 아빠의 사랑을 일깨워 아이들에게서 점수를 받고 싶었다.

<연극감상문> 사천 사남초4 황은손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과 함께 연극 '가시고기'를 보러 갔다. 장원아트홀은 생각보다 작았다. 늦게 도착했지만 다행히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너무 흥분되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만 보다가 배우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대 가까워서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집중이 잘 되었다. 장면 장면 볼이 꺼질 때마다 조용한 음악과 함께 감동이 가슴에 밀려왔다. 아빠가 다움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다움을 엄마에게 보내려고 일부러 모진 소리를 하는 아빠, 자기 얼굴 조각과 꽃핀을 남겨두고 떠나는 다움을 볼 때 눈물이 났다. (중략) 나중에 다움이 역할을 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5학년 언니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 건강하고 함께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좋은 연극을 만들어주시길 문들께 감사드립니다.



ENJOY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메세나 전도사

황차장이 근무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국내 유일의 항공 기계계 종합기업으로 오래전부터 경남메세나를 후원해오고 있는 회원사이다. 황차장은 회사내 풍물, 음악동호회 지원 외에 도 연말연시 또는 회사의 뜻깊은 날에 모든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기획, 공연, 피기를 희망하고 있다. 메세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더욱 밝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그 옛날 못다한 데이트를 즐기듯 문화예술이 풍성한 곳을 찾아 다니는 황차장 가족!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전파하는 메세나 전도사로서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메세나개론

창원대학교
예술대학
강의 스케치

창원대학교 예술대학의 메세나개론 수업을 맡은 안병삼 교수는 시대를 건다 문득 발길이 멈춰 섰다. 창원 용호동 건물 1층에 자리한 갤러리. 그 생경한 풍경 앞에서 걸음을 뚝 수 없었다. '이 공간의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갤러리를 열었을까?' 소위 말하는 금싸라기 땅에 갤러리로 그만한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속된 계산이 머릿속을 떠다닌다. 그것도 잠시, 산업 중심 사회의 고단함에 밀려난 문화예술의 금의환향을 보는 것 같아 반가웠다. 동시에 변화가 1층이란 공간에 갤러리를 연, 일면식 없는 주인장을 존경하게 됐다. 문화예술은 이렇게 사람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올해 메세나개론 강의 지도를 맡은 안병삼 교수

懸梁刺股 현량자고

머리털을 대들보에 묶고 허벅다리를 찢러가며 열심히 공부함을 이르는, 학창시절에 배운 사자성어다. 3월 말 어느 오후,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되돌아가보는 호사를 누렸다. 문화예술을 하는 이들이 문화예술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안병삼 교수의 메세나 수업 청강이다. 예술대 학생들에게 가장 밀접한 과목이다 보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진지하기만 하다. 골뎀, 침 넘기는 소리가 다 들릴 것만 같아 조심스러웠다.

예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메세나

'메세나 개론'은 2011년 봄, 지역에서 3년 여 메세나 활동을 하던 김도기 교수(당시 창원대 예술대학장)가 예술도 비즈니스이고 문화도 사회변화에 맞추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개설했다. 최근 몇몇 대학원에서 예술경영, 문화경영이라는 이름의 강좌는 개설되었지만 메세나 자체에 대한 강의는 창원대학교가 최초다. 지난 해, 손갑동 전 메세나협의회 전무의 '기업과 메세나협회의 시각에서 본 메세나개론'을 시작으로 올해, 창원시립교향악단 단무장인 안병삼 교수의 '예술인의 시각을 통해 본 메세나개론'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수업을 들은 선배 권유로, 그리고 친구 권유로 과목을 선택했다는 학생, 생소한 메세나가 뭔지 알고 싶어 선택했다는 학생, 수업을 받으며 진로가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 만족한다는 학생... 언젠가 메세나 현장에서 다시 만날 얼굴들이리라.

시대적 흐름과 역사를 함께하는 메세나

이 날 수업은 미술사와 음악사를 통해 본 메세나였다. 이제까지 우리가 감동받았던 숱한 미술작품과 수 많은 연주곡들이 메세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았다. 후원 주체가 왕실에서 교회로 그리고 귀족과 군주와 신봉자본계급과 시민으로 그리고 지금, 기업으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사적 취미이든 공적 지원이든 역사를 거쳐 이러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했기에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과 역사를 함께하는 메세나. 기업이 문화예술로 사회 환원을 하고 그것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윤창출로 이어지듯 메세나 수업과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전문가를 길러내기 바란다.

예술은 곧 비즈니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뛰어난 비즈니스 역량 또한 예술이다.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예술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한 전설적인 인물,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워홀'이 남긴 말이다. 굳이 그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술이 비즈니스와 결합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는가? 자아도취에 빠져 선블리 무대에 올렸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기 십상이다. 작품의 완성도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협찬과 후원을 어떻게 끌어올지, 또 만든 작품은 어떻게 홍보하고 관객을 불러들일지, 후원사에는 어떤 이익을 돌려줄지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메세나의 가치다.

LOVE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무지개 크리스마스 경남메세나협의회와 STX조선해양이 선사하는 특별한 추억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12월의 어느 날, 진해 STX조선해양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났다. 40명의 어린이들을 이끌고 나타나 철판소리와 용접소리로 시끄러운 조선소에 흥겨운 캐롤을 선물한 산타클로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

추운 날씨 때문에 집안에서 컴퓨터하고만 놀고 있을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경남메세나협의회와 STX조선해양이 머리를 맞댔다.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즐거운 추억, 맛있는 음식을 모두 선물하고 싶었던 경남메세나협의회와 STX조선해양은 오랜 고민 끝에 크리스마스 어린이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드디어 아이들과 약속한 날이 되어, 경남메세나협의회와 STX조선해양 담당자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어린이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인형과 요정 분장을 한 배우들의 춤과 노래는 어린이들의 눈을 사로 잡았다. 호두까기 인형이 생쥐에게 공격을 받는 장면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모두 한마음으로 호두까기 인형을 응원하기도 했다.

두 번째 선물은 바로 STX조선해양 마린센터에서의 점심식사. 회사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되는 마린센터가 오늘만은 특별히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 돈까스, 감자 튀김, 치킨, 과일 등 좋아하는 메뉴로 가득한 식당을 보고 아이들이 탄성을 질렀다. 식당은 어느새 맛있게 점심을 먹는 아이들의 재잘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선물은 바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알록달록 색 칠함과 반짝이는 색모래로 만들면서 아이들은 카드를 선물할 친구와 부모님 생각에 미소가 번졌다. 카드를 다 만든 아이들은 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커다란 배를 보며 신기해 했다. 흥겨운 캐롤과 함께 즐거운 카드 만들기를 마치고 아쉽게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숨겨진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남메세나협의회와 STX조선해양의 담당자들이 저녁 늦게까지 준비한 선물 주머니! 여러 가지 과자와 학용품이 담긴 예쁜 주머니를 보고 아이들의 얼굴은 금세 커다란 미소로 바뀌었다. 비록 반짝이는 코를 가진 루돌프도, 하늘을 나는 썰매도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만은 가득한 산타클로스가 되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기뻐했다. 지난 번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무지개 친구 만들기 에 이어 두 번째로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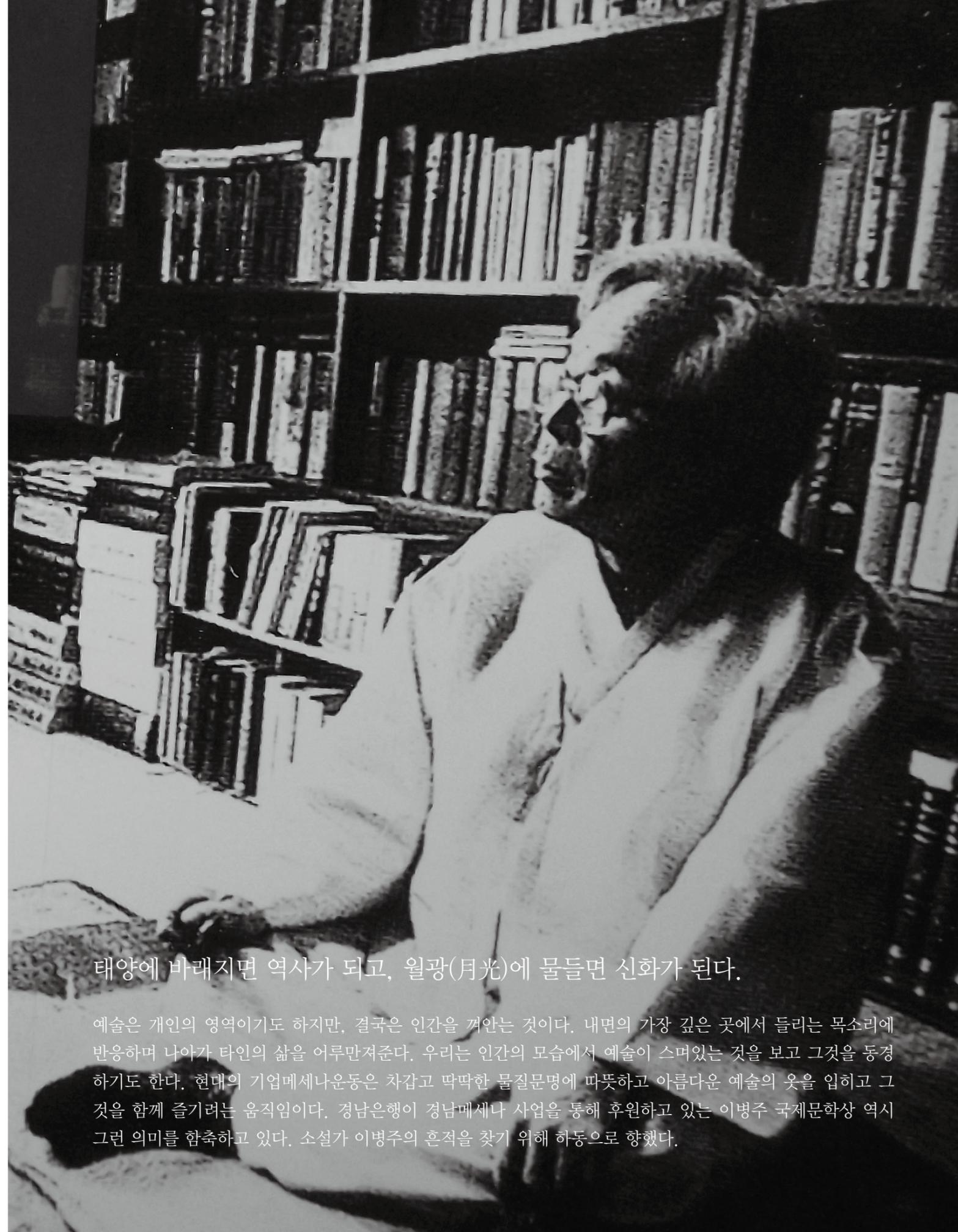
글 / 사진 STX조선해양조선해양 홍보팀 이현경 주임





LEE BYOUNG JU

하동출신문인 이병주



태양에 바래지면 역사가 되고, 월광(月光)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예술은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인간을 겨냥하는 것이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반응하며 나아가 타인의 삶을 어루만져준다. 우리는 인간의 모습에서 예술이 스며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동경하기도 한다. 현대의 기업메세나운동은 차갑고 딱딱한 물질문명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옷을 입히고 그것을 함께 즐기려는 움직임이다. 경남은행이 경남메세나 사업을 통해 후원하고 있는 이병주 국제문학상 역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소설가 이병주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하동으로 향했다.



인간에 대한 성찰

지리산이 품고 있는 하동은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 지리산이 꺾어야했던 상처는 골을 더 깊게 했다. 산길을 따라 작은 마을을 지날 때면 굽이굽이 작은 길들이 어디론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같다. 이병주 문학관 역시 그 산길 끝자락에 있다. 뒤로는 이명산을 병풍처럼 치고 있는 하동군 북천이다. 이명골짜기엔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른다. 소설가 나림 이병주는 바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났다. 골짜기 상류 어디쯤엔 펜촉 같이 날카로운 발원지가 있을 테고, 잉크는 흘러내려 이야기의 물줄기를 만들었다. 세월이 흘러 역사가 되고 신화가 된 이야기다. 문학관 입구엔 나림 이병주가 사용하던 펜을 형상화한 만년필 두 개가 일주문처럼 서있다.

밤엔 불이 들어온다.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펜촉이 햇살을 받아 꽃처럼 빛난다. 필화(筆花)다. 펜의 꽃은 화를 불러온다. 필화(筆禍)사건 이후 나림 이병주는 정식 소설가가 되었다. 1955년 부산 『국제신보』에 입사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삶과, 소설가로 데뷔한 후엔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1954년 문단에 등단하기 이전 이미 〈부산일보〉에 소설 「내일 없는 그 날」을 연재하기도 했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자 이병주는 이를 비판하며 ‘내게는 조국이 없다. 산하(山河)가 있을 뿐이다’는 내용의 논설을 썼다가 혁명재판소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년 7개월간 복역

했다. 그 후 1965년 월간 『세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제목의 소설을 보냈다. 필화사건으로 구속된 언론인 이야기였는데 누가 읽어봐도 이병주 자신의 체험을 쓴 소설이었다. 편집인은 이병주가 붙인 제목 앞에 ‘소설’을 붙여 『소설·알렉산드리아』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보냈다. 이 소설은 이병주를 널리 세상에 알려주었다. 소설가로 데뷔한 후 술자리가 더욱 잦아졌다. 고급요정에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교우록은 폭넓었다. 이병주의 성품이 잘 나타난 행동이며 나아가 그가 남긴 아래의 글과 잘 연결된다. 어떤 주의를 가지는 것도 좋고, 어떤 사상을 가지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주의, 그 사상이 남을 강요하고 남의 행복을 짓밟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기 자신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힘으로 되는 것이어야 한다. 「뽀에로와 국화」 중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느라 남을 괴롭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병주의 글에서는 주어나 이념보다 인간이,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성찰이 느껴진다. 이병주문학관에 도착하니 최중수 관장께서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최중수 관장은 이병주문학관이 탄생하기까지 헌신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북촌 초등학교에 교장으로 재임할 시 제자들에게 임철 위인전을 고르다 이병주문학을 만났다. 이병주 역시 북촌초등학교를 다녔고 모교가 낳은 대문호를 기리는 일에 최중수 관장이 열성을 다했다. 최중수 관장은 뽀뽀이 흩어진 이병주의 작품을 눈에 띄는 대로 모았다. 스스로 작품을 읽고 연구하며 본격적으로 이병주문학을 재조명하고 계승해야겠다

는 결심을 했다. 그렇게 하여 2001년 9월 이병주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최중수 관장이 이병주 문학을 만난 건 신양이고 숙명인 듯했다. 문학관 사무실 안쪽에 마련된 차실에 앉아 최중수 관장께서 들려준 이야기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몇 번 봐있는데 늘 그 모습 그대로다. 그 변함없음이 문학관을 잘 꾸려가고 이병주하동국제문학상 같은 큰 행사를 무사히 잘 치러내는 것이리라. 이병주기념사업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문학제는 전국학생백일장을 비롯하여 국제문학심포지엄, 이병주문학의 밤, 문학관 강당을 활용한 전시회 등을 한다. 2006년 이래적으로 이병주 전집 30권을 한길사에서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학관엔 아직 할 일이 많다.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북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문인들이 문학관을 방문해 하룻밤 묵을 곳이 있으면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더욱 좋을 것이다. 문학계 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명골짜기가 문학의 향이 흐르는 그런 곳이 될 듯하다. 최중수 문학관장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 이병주문학관의 미래가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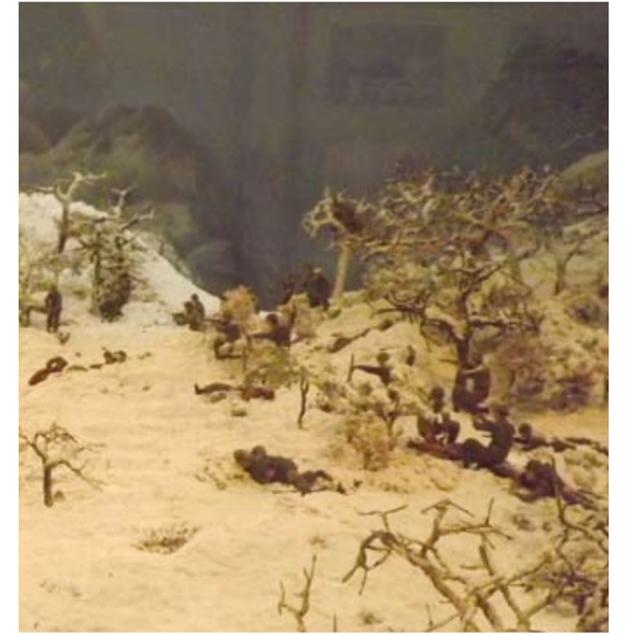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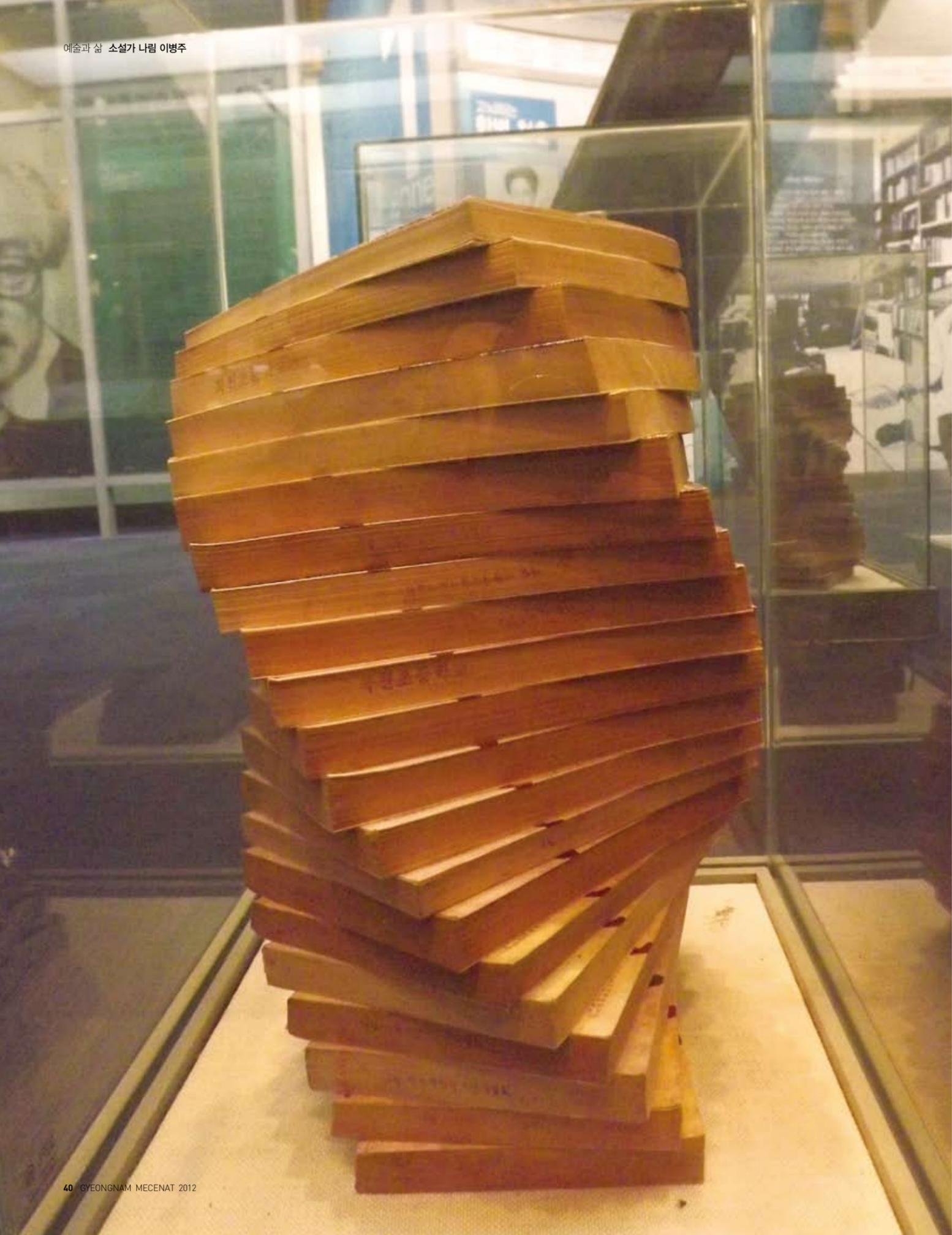
한국의 발자크

문학관 내부는 작가 이병주가 태어나 타계할 때까지의 삶의 행적과 문학적 연대기를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따라갈 수 있게 꾸며져 있다. 전시실에 들어

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대형 만년필이다. 만년필은 중앙 천장의 원형 원고지를 뚫고 나갈 듯 비스듬히 세워져있는데 그 모습이 입체적이며 생생하다. 만년필 뒤로 그의 대표작인 『지리산』의 한 장면을 모형으로 만든 디오라마가 펼쳐져 있다. 먼저 ‘냉전시대의 자유인, 그 삶과 문학’, 두 번째로는 ‘한국의 발자크, 지리산을 품다’, 세 번째 구역에는 ‘끝나지 않은 역사, 산하에 새긴 작가 흔’, 그리고 마지막 ‘아직도 계속되는 월광 이야기’ 등으로 나뉘어 가슴 아픈 역사를 겪어야 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슬픈 개인사가 시대 순으로 정리돼 있다. 원형전시실을 한 바퀴 돌고 나면 파란만장했던 한국현대사를 그대로 지나온 느낌이 든다.

소설가 나림 이병주.

등단 한 후 타계할 때까지 27년 간 한 달 평균 1천 여 매를 써내는 초인적인 집필 활동으로 80여권의 작품을 남겨 작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1977년 장편 『낙엽』과 중편 『망명의 늪』으로 한국문학작가상과 한국창작문학상을, 1984년 장편 『비창』으로 한국펜문학상을 수상했다. 진실을 추구하는 기개와 용기를 지닌 ‘기록자로서의 소설가’, ‘증언자로서의 소설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공간, 남북의 이데올로기 대립, 정부 수립, 6·25동란 등 파란만장한 한국현대사를 온 몸으로 겪은 작



가의 개인적 체험은, 한 지식인으로 누구보다 우리 역사와 민족의 비극에 대해 고뇌하게 했고 이를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관부연락선』, 『지리산』, 『산하』, 『소설 남로당』, 『그해5월』 등의 대하소설들은 작가의 그런 문학적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역사에 대한 희망,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시선으로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그의 문학은 역사의식이 부재한 오늘 날 많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조국이 없다. 산하(山河)가 있을 뿐이다.’ 라는 뼈아픈 말의 의미가 새삼 뒤통수를 친다. 아직도 사상적 위기에 빠져 스스로를 가두고 타인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한편으로는 사상도 없이 가벼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도 허다하다.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는 건 언제나 어렵다. 다만, 지금 살아있어 하동골짜기의 차가운 바람을 맨얼굴로 받아내며 집으로 갈 수 있어 다행이다.

아직도 계속되는 월광 이야기

이병주는 언론인다운 사실적인 문체와 철학적 사유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꼼꼼히 자료 챙기고 개인적 영역이기도 한 일기장 속의 이야기 등도 소설에 담았다. 동경유학에서부터 학병 출전, 교직생활, 언론활동, 투옥, 문단대립 등으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개인사는 한국의 역사가 안은 상처이기도 했지만, 이병주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할 고통이기도 했다. 이병주의 소설은 그대로 한국 현대사라 할 만 하다. 『지리산』, 『그해5월』 등 대하소설은 한국 격동의 현장을 다루고 있고, 이런 소설은 이병주 자신이 역사의 격동기를 가장 현장에서 접근하여 생생한 관찰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역사의 증언이며 기록이라 할 만 하다. 이런 사실적이고 정밀한 관찰을 통해 수많은 작품을 남긴 이병주는 19세기 전만 프랑스의 소설가로 사실주의의 선구자이기도 한 발자크와 비교된다.

나는 이 나라에서 문학이 가능하자면, 역사의 그물로써 파악하지 못한 민족의 슬픔을 의미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슬퍼해 보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지리산』 중에서 이병주는 1921년 하동군 북천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41년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대학에 입학하고, 문학과 예술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불어를 배우면서 발레리, 보들레르 등 시인에게 매료되었고, 위고, 발자크, 졸라 등 시대상황을 소설로 쓴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파리에서 일주일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운명적으로 만난 것이 발자크의 작품이었다. ‘나폴레옹 앞엔 알프스가 있고 내 앞에는 발자크가 있다’ 라는 글을 써 불인 이병주는 스스로 발자크를 마음에 품었고, 발자크와도 같은 소설가가 되리라 다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학병으로 동원되어 중국 소주(蘇州)로 가게 되었다. 일본군 제60사단 치중대에서 보초병으로 근무했다. 귀국 후 대학에서 영어, 불어, 철학 등을 강의하다가 6.25전쟁이 터져 많은 고초를 겪는다. 이후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겪은 필화사건 등 이병주에게는 한국역사가 곧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병주 문학의 특징을 말할 때 한국 현대사의 격동의 현장을 다루고 있어 작품의 내용들은 바로 역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다.

글 / 사진 박서영

이병주 작가에 대한 자료는 <이병주문학관 소장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박서영 시인은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199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였고,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과 2010년 요산창작기금을 받았다. 시집으로 『붉은 태양이 거미를 문다』가 있다.



구북예술촌에 들어서면 맞이하게 되는 공연장

봄을 맞아 하루 일정으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마산의 웰빙 여행코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출발점은 마산 가포고등학교 앞이다. 청춘남녀들의 데이트 코스이자 가족들이 주말마다 손잡고 놀러가던 추억의 명소였지만 이제는 매립되어 뿌연 먼지 날리며 공사가 한창인 옛 가포유원지를 지나 드라이브 코스로 진입한다. 하얗게 흩날리는 벚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낭만적인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다. 유명한 하동 벚꽃십리길 부럽지 않다. 도로 양편에는 맛집과 카페가 즐비하다. 따스한 봄볕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 쉬어가도 좋다. 특히 밤에는 마창대교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바다와 예술이 공존하는 곳,
경남메세나와 함께
마산 구산면 예술기행을 가다.

Travel for Art in Gusan

마산의 쪽빛바다

덕동시립테니스장을 지나 삼거리에서 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구산 수정마을 방향으로 달려간다. 구산면사무소를 지나 좌회전하여 구부러진 봉화산길을 따라 간 뒤, 나무계단을 걸어 언덕에 오르면 마산의 쪽빛바다가 한 눈에 펼쳐진다. 봄을 머금은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숨이 확 트인다. 가톨릭교육관에서 나와 왔던 길로 1.5킬로 정도 달리면 저도연육교 방향 표지가 보인다. 표지대로 따라가다 구북마을에 들어선다.

구북예술촌

한가로운 여촌 풍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좌측에 구북예술촌이 보인다. 웬 사람들이 흰 건물 외벽에 매달려 페인트칠을 하고 있어 알아보니 예술촌 윤환수 총장 내외였다. 구북예술촌은 1997년 서예가 석강 윤환수 선생이 폐교를 수리하여 개관한 대한민국 1호 폐교예술촌이다. 건물수리부터 각종 행사까지 자체비용으로 대부분 충당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은 여촌마을에 예술의 꽃을 피우려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였던 꿈을 성실히 이루어가고 있다. 구북예술촌에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구북미술관, 총장의 서각 작품들과 염색작품을 볼 수 있는 석 갤러리, 입주 작가들의 레지던스 공간인 구북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다. 레지던스 작가 초대전, 야외전시 및 체험, 야외공연 등 풍성한 예술축제로 꾸며져 예술인들은 물론 일반인들과 관광객이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온다. 올해 8월 제16회 바다예술제가 열릴 예정이다. 일정확인: www.kubokartcenter.com / 055-221-8797

저도 연육교

구북예술촌을 나와 바다를 끼고 더 달리면 구북리와 저도를 연결하는 2개의 저도연육교에 이른다. 먼저 '괘이강의 다리'로 알려진 붉은 철재 연육교를 걸어서 지나가본다. 이곳은 연인들의 명소다. 사랑의 좌물쇠가 남산타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육교 난간에는 달콤한 사랑의 말을 수놓은 좌물쇠들이 아귀자귀하게 걸려있다. 은색 연육교는 차로 이동 가능하여 저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 저도 초입에는 횡집, 카페, 포장마차 등이 있어 요기를 할 수 있다. 여름에는 시원한 팔빙수가 일품이다. 주차를 하고 저도로 걸어 들어가면 비치로드 표지판과 함께 용두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 입구가 있다. 소나무 숲이 울창하여 향긋한 솔내음을 맡으며 산을 오를 수 있어 좋지만,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면 하포마을로 더 들어가 용두산 자락에 만들어진 비치로드를 따라 둘레길을 걷는 것을 추천한다. 몇 년 전부터 몸과 마음에 여유를 찾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레길이나 둘레길을 걷는 것이 유행이다. 해변으로 걷는 비치로드는 남해안 쪽빛 바다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가볍게 걸어가려면 제1전망대까지, 체력이 거뜬하다면 제2전망대나 바다구경길로 계속 걸어가면 된다. 이제 마지막 코스로 간다. 왔던 길로 되돌아나가 신촌삼거리에서 석곡리를 향해 좌회전하여 바다와 여촌을 낀 해양일주도로 쪽 달려가면 해양드라마세트장에 도착한다. 목조 25채와 가야시대 및 중국풍의 선박 3척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김수로>, <무사 백동수> 등 많은 사극이 촬영되었다. 온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 바다위에 만들어진 목조건물을 오가며 즐겁게 관람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주차 및 입장료 무료. 구산면 석곡리 산183-2에 위치. 문의전화는 055-225-3713



01 봉화산길 정상에서 바라보는 마산 앞바다



02 붉은 연육교에 걸린 사랑의 자물쇠



03 해양드라마세트장

경남메세나가 소개하는
도자와 건축의 만남,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ON ONE FINE SPRING DAY

어느 화창한 봄날에

만물이 생동하는 봄,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경관과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미술관으로 가족, 연인과 함께 감성충전을 위한 봄나들이를 떠나는 것은 어떨까 분청도자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에는 도자와 건축의 만남을 지향하는 공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Clayarch Gimhae Museum)'있다. 지난 2006년 3월 24일에 문을 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김해 도예촌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된 세계 최초의 건축도자전문 미술관이다.

건물자체가 하나의 작품

클레이아크(clayarch, 건축도자)는 흙을 뜻하는 클레이(clay)와 건축을 뜻하는 아크(Architecture)를 합친 말로 건축도자를 의미한다. 건축도자는 기와, 벽돌, 타일 등과 같이 흙으로 된 건축재료 뿐만 아니라 건축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예술작품들을 일컫는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먼저 두 개의 전시관 건물이 독특한 외관을 뽐내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수작업을 거쳐 구워진 5,036장의 도판 Fired Painting 이 거대한 유리돔으로 덮인 원통형의 돔하우스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돔하우스 뒤편 언덕에 자리한 제2전시관인 큐빅하우스는 장식과 채광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색감의 세라믹 루버로 싸여 있어 흙과 건축의 만남이라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미술관 건물과 자연친화적인 미술관 주변 경관의 어우러짐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건축도자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전시 개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연간 2회의 기획전과 3회 이상의 특별전 등 건축도자의 문화를 선도하는 실험적이고 수준 높은 전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제1전시관인 돔하우스에서는 개관 6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전으로 <CONTEMPORARY Han-Ok>을 선보인다. 현대 도시에 적응하며 진화해가는 도시한옥을 우리나라 대표 한옥 건축가들을 통해 살펴보고 현대건축으로서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전시이다. 조장구, 김용미, 김종현, 황두진 건축가 4인과 한옥의 지붕을 모티브로 설치작업을 하는 백승호 작가, 건축사진가 윤준환 총 6명이 전시에 참여하였다. 현대생활에 맞게 산업적, 기술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대 한옥과 조형적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접근한 설치미술작품, 오랜 시간 자리하고 있던 경남 지역에 남아있는 한옥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총 34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는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뉘며 건축가들의 도시한옥에 대한 각자의 관점과 방향에 따라 <Ⅰ. 한옥과 다양한 건축구법의 조율>, <Ⅱ.공적 영역으로 확장>, <Ⅲ.한옥 구조 개념의 현대적 적용>, <Ⅳ.한옥의 비판적 진화>로 구성된다.



제2전시관 큐빅하우스 개관으로 한층 풍성한 문화컨텐츠

이밖에도 다양한 문화교육, 이벤트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이번 3월 24일에 제2전시관인 큐빅하우스가 개관할 예정으로 기존에 운영되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새로운 전시와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체험, 교육과 문화이벤트가 더해져 관람객들이 한층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큐빅하우스는 갤러리 3실과 키즈스튜디오, 키즈 라이브러리, 테라스스튜디오, 시청각실 등으로 구성되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과 상호 보완되는 시설이다. 이제까지 미술관에서 기획된 전시는 미술관의 정체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건축도자와 관련한 전시가 개최되어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고하고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같은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큐빅하우스의 갤러리는 미술관의 전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람객들이 예술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미디어 등 장르 구분 없이 다채로운 주제의 전시들로 채워진다.



흙으로 직접 나만의 작품 만들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는 전시관 외에 흙의 물성과 촉감을 직접 느끼며 나만의 도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도자체험관이 있다. 평소 점토로 자신이 갖고 싶었던 컵이나 오브제를 자유롭게 만들어 간직하거나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는 아이와 함께 전시를 감상한 후에 이와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미술감상과 체험이 결합된 하나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생, 청소년은 물론 일반 성인 누구든지 체험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쉽고 재미있게 도자체험을 할 수 있으며 1시간 30분 정도의 수업으로 1일 총 4회(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2시 40분, 오후 4시 20분) 열린다. 소성 코스를 선택하면 체험한 작품을 말린 다음 유약을 발라 가마에 구워 집으로 보내준다. 또한 참가비는 1만원으로 단체체험(20인 이상)일 경우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며 미술관의 모든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가마에 작품을 굽지 않는 무소성의 경우 5,000원이다.

효성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세빌리아의 이발사 & 피가로의 결혼
G. Rossini W.A. Mozart

2012. 4. 12 (목) 19:30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



지휘 백진현 해설 장일범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백작 Ten, 전병호 피가로 Bar, 송기창 로지나 Sop, 김정아 피가로 Bass, 노운병 백작부인 Sop, 허미경 수잔나 Sop, 김해정

초대권 배부 | 경남오페라단 (창원상공회의소 5층) ☎ 055) 266-5580

주최 | 세 경남오페라단 협찬 | (주) 효성

두 커플의 죄충우돌 결혼이야기 연작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 피가로의 결혼

경남오페라단이 오는 4월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 무대에 올릴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도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들이다. 두 작품은 서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리즈로 작곡자는 다르지만 연결해서 감상을 해보면 색다른 재미가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오페라, 극장을 찾기 전 미리 공연내용을 알고가면 감동도 두 배가 된다. 알마비바백작과 로지나, 피가로와 수잔나 두 커플의 죄충우돌 결혼이야기를 미리 만나보자!



『세빌리아의 이발사』 G.A. Rossini “Il Barbiere di Siviglia”

18세기 스페인의 세빌리아 거리. 로지나에게 첫눈에 반한 알마비바백작은 매일 새벽 그녀의 집 앞에서 세레나데를 불러대지만 반응이 없는 그녀 때문에 애가 탄다. 이때 만능해결사인 이발사 피가로를 만나고 백작은 그의 도움으로 로지나의 마음을 얻는다. 백작과의 사이를 눈치 챈 로지나의 후견인 바르톨로메는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과 로지나의 결혼을 급하게 진행시킨다. 백작은 결혼 전날 밤 로지나를 찾아가 그간의 오해를 풀고 사전에 매수한 결혼 공증인은 백작과 로지나의 결혼을 발표한다. 백작이 건네는 두둑한 결혼 지참금에 바르톨로메는 못이기는 척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며 오페라의 막이 내린다.



『피가로의 결혼』 W.A. Mozart “Le Nozze di Figaro”

알마비바와 로지나의 결혼에 큰 공을 세우고 백작에게 스카웃되어 이발사 생활을 청산한 피가로는 아침부터 수잔나와의 결혼준비로 신이 나고, 수잔나는 자신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백작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백작부인이 된 로지나는 영원할 것 같았던 알마비바의 사랑이 식고 급기야 자신의 하녀에게 눈길을 주는 남편 때문에 외롭고 슬프기만 하다. 백작부인과 수잔나는 백작의 버릇을 고쳐주려 그를 거지처럼로 불러낸다. 백작은 수잔나인 줄 알고 변장한 자신의 부인에게 수작을 피우는데, 마침 저편에서 백작부인으로 변장한 수잔나가 피가로와 함께 있는 걸 목격한다. 그 광경에 불같이 화를 내던 백작은 함께 있던 수잔나가 자신의 부인임을 알고 깜짝 놀란다.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백작은 부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부인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한다.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피가로와 ‘수잔나의 잔치상 앞으로 출발~’을 외치며 오페라의 막이 내린다.

경남메세나와 함께하는 문화산책

MECENAT IN CULTURE PREVIEW

01 [내 삶의 작은 썬표, 목요풍류]

명사와 국악의 특별한 만남 : 명불허전(名不虛傳)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전수관의 2012년 목요풍류의 야심찬 기획, <명불허전>은 문화와 도시, 문화와 기업, 문화와 콘텐츠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지역의 명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신개념 국악 토크 콘서트이다. 차와 음악이 함께하는 목요풍류를 통해 지친 일상에 썬표를 찍어보자.



일시 2012년 4월 12일 - 12월 13일 19시 30분
장소 가곡전수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37)
문의 가곡전수관 055-221-0109 www.igagok.org

주제	날짜	초대명사	
문화와 기업	4월 12일	한철수	· (사)아름다운우리가곡 이사장 · (주)고려칠강 회장 · 전 마산상공회의소 회장
	6월 14일	최종경	· 경남스틸 회장 ·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문화와 도시	7월 12일	허정도	· 도시학 박사 / 건축사 ·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초빙교수 ·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 전 경남도민일보 대표이사 ·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책 읽어주는 남편> 저자
	9월 13일	유장근	·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유장근 교수의 도시탐방대> 대장 · <근대중국의 지역사회와 국가권력>
문화와 콘텐츠	11월 8일	김보성	·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초대원장 · 전 부천시 정책개발연구단 문화정책 전문위원 · 전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장
	12월 13일	서익진 하효선	· 경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마산, 길을 찾다>, <마산만, 돼지꿈을 꾸다> 저자 · ACC(Art & Cinema Communication) 프로젝트 대표 · ACC프랑스 그르노블 한국문화협회 회장 · 전 파리고등사회과학대학원(EHESS) 사회학자 알랭 투렌 (Alain Touraine) 책임연구소 연구원

02 [Hybrid(혼성混成)으로 찾아온 2012 창원아시아미술제]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창원아시아미술제는 2003년부터 국제미술제로 발돋움하여 한국의 젊은 작가는 물론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0개국의 주목받는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국제미술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올해 미술제의 주제는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혼성 hybrid"다. 아시아적 시선으로 다양성과 다원성을 품은 미래의 비전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부대행사로 성산아트홀 광장 등에서 퍼포먼스 페스티벌, 아트마켓, 문화벼룩시장, 인물화 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따스한 봄날 온 가족이 문화 나들이 오면 좋을 것이다.



전시명 2012 창원아시아미술제 현대미술전
일시 2012년 4월 10일(화) - 29일(금)
장소 창원 성산아트홀
문의 창원아시아미술제사무국 055-263-3553 www.caaf.or.kr



03 [삭막한 공간에 詩 한 떨기 피어오를 때]

경남문인협회(회장 고영조)는 시와 사람을 잇는 봄날의 낭만을 계획하고 있다. 5월 25일 창원공단 우수AMS(주)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시(詩)를 낭송하는 사회'. 기업인과 문인 그리고 일반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낭송 문학 페스티벌로서 시낭송을 비롯하여 시노래, 시극,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소통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날 부대 행사로 경남 문인들의 '도서 시인회'가 있는데, 현장에서 작가의 시인이 된 도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일시 2012년 5월 25일(금) 18시 30분
장소 우수AMS(주) 특설무대(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62)
문의 경남문인협회 안화수 사무처장 010-5064-0012

04 [5월, 가족과 함께 환경아동극 보러 가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진주의 극단 현장대표 정대균은 가족이 다함께 볼 수 있는 환경 아동극 <뿌왕뿌왕 할머니와 꼬방 고양이>를 상연한다. 할머니와 고양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작품은 버려진 박스를 타고 한바탕 신나게 놀며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보는 내내 흥미를 자극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과 이웃은 물론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2012년 5월 2일 - 12일 평일 20시, 토요일 17시
장소 현장아트홀 (진주시 진주대로 1038)
문의 극단현장 055-746-7411 www.hjarthall.com

05 [흥을 나누는 고성오광대, 신축전수관 개관과 정기공연]

고성오광대보존회(회장 이윤석)는 오랜 세월 '精이 있는 춤판'을 벌이며 고성민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제 지역민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오광대 춤을 배우러 오는 이들이 늘어 이번에 전수관을 신축하여 개관한다. 이날 개관식은 정기공연과 겸하여 이루어진다. 명불허전 신명나는 고성오광대 공연은 물론 전국의 내로라하는 판소리, 타악, 농악단체를 초청하여 지역민과 어울려 한바탕 웃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고성오광대는 7월 2일부터 하기탈춤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가족, 친구, 회사 동료나 동호회 회원 등 지인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시원한 춤사위로 무더운 여름을 날리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일시 2012년 6월 23일(토)
장소 신축전수관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571)
문의 고성오광대보존회 055-674-2582 www.ogwangdae.or.kr

06 [영화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경남영화협회(회장 정흥연)는 영화에 관심이 많은 경남도민들에게 영화제작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화 문화에 대한 체험 및 이해 증진,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2012 제3기 경남 영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기획에서 편집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습득을 목표로 영화제작 이론과 세부영역별 실습을 초급과 고급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한다.



일시 초급 2012년 5월 중·고급 9월 중 개강
장소 경남영화협회 사무국
문의 박재현 사무국장 010-5034-9073

01 경남메세나협의회 후원 제30회 경상남도연극제

The 30th GYEONGNAM THEATER FESTIVAL

아라홍련 피어나듯 활짝 꽃 피우는 경남연극

올해로 30번째를 맞는 경남연극제. 지난해 경남 연극은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연극제 대상작인 사천 극단 장자번덕 <바리, 서천 꽃 그늘 아래>가 전국연극제에서 대령상을 받으며, 경남 연극의 위상을 드높인 것. 올해 전국에 드높아진 위상을 더욱 단단히 하고, 그 바탕 아래에 경남 최고 극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 극단들 간 치열한 경연의 장이 다시 펼쳐진다. 제30회 경남연극제가 '아라홍련처럼'을 주제로 함안문화예술회관과 함안문화원을 오가며 펼쳐진다. 경남연극협회 소속 11개 시·군 지부에서 13개 극단이 참가한다. '아라홍련처럼'을 주제로 한 것은 700년 세월을 거슬러 다시 피어난 고려시대 연꽃 아라 연처럼, 아름다움도 우아함도 고독함도 없이 아무 것도 품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은은한 연극의 힘을 이번 연극제에 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남도민일보 김두천 기자

공연일정

일시	지부	극단	작품명	연출	공연장
3. 23 18:00(금)			개막식		함안문화원
3. 24 19:30(토)	사천	장자번덕	황구도	이훈호	함안문화예술회관
3. 25 19:30(일)	통영	박수골	버려진 쌀통	박승규	함안문화원
3. 26 19:30(월)	창원	미소	라이방	천영훈	함안문화예술회관
3. 27 19:30(화)	마산	마산	황소, 지붕 위로 올리기	최성봉	함안문화원
3. 28 19:30(수)	진해	고도	숨바꼭질	유병철	함안문화예술회관
3. 29 19:30(목)	창원	창원예술극단	혈서	이재희	함안문화원
3. 30 19:30(금)	진주	현장	백제고시원	고능석	함안문화예술회관
3. 31 14:00(토)	함양	광대	화요일의 두꺼비	송창주	함안문화원
4. 1 19:30(일)	거제	예도	선녀씨 이야기	이상우	함안문화예술회관
4. 2 19:30(월)	김해	이루마	가시고기	이정유	함안문화원
4. 3 19:30(화)	거창	일체	개똥밭	박종희	함안문화예술회관
4. 4 19:30(수)	밀양	메들리	엄마야, 누나야 강변실자	김은민	함안문화원
4. 5 16:00(목)	김해	번작이	의자는 잘못였다	조중윤	함안문화예술회관
4. 6 19:00(금)			시상 및 폐막식		함안문화원



02 경남메세나협의회 공동주관 2012 경남국제아트페어

GYEONGNAM INTERNATIONAL ART FAIR 2012

경남미술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적 공감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경남미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시작을 알리는 뜻 깊은 미술문화 축제인 "2012 경남국제아트페어"가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2012 경남국제아트페어는 (사)경남미술협회, 창원컨벤션센터(CECO), 경남메세나협의회, 경남신문 4개 기관이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며, 그림에 관심이 있는 경남도민과 기업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역 미술문화와 미술시장 활성화의 전기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2012년 6월 28일(목) - 7월 1일(일)

장소 창원컨벤션센터(CECO) 제2전시장

문의 경남국제아트페어사무국 055-212-1014 www.giaf.co.kr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소개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 _ ARTS & BUSINESS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고,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전략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여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 공간, 티켓 구매, 직원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및 직원 예술교육, 공연초대, 기업 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중소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경상남도에서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

회원사 협력사업 _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 기업 행사 시 직원과 고객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합니다.

예술기행 : 회원사 직원 및 가족에게 지역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동아리 지원 : 사내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자기진작을 도모합니다.

문화공감 : 회원사 대표 및 담당에게 도내문화예술회관 공연관람 티켓을 제공합니다.

미술작품 대여 : 도내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대여하여 사내에 전시해드립니다.

지정기탁 :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문화 나눔사업 _ SHARING ART

찾아가는 메세나 :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 찾아가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티켓 :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돕고 있습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_ DEVELOPMENT

<경남메세나> 발간 : 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소식을 알리고자 연 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영세미나 및 경남메세나포럼 개최 : 도내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영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경영 도서 보급 : 문화경영 관련 우수 도서를 회원사에 배부해드립니다.

예술경영 아카데미, 결연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샵 : 도내 예술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예술경영 능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돕습니다.

경남메세나대회 _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개최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시상 :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합니다.

COVER STORY



Bae Dallae 배달래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대학시절부터 관심 있던 바디페인팅의 세계에 깊이 빠져 현재 바디페인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해외에서 수십 차례의 퍼포먼스를 하였으며 바디페인팅으로 무용과 미술,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토탈장르를 지향하고, 격정적이며 감동을 주는 무대를 만들고 있다.

「그리움이 사라지 전에」

제30회 경남연극제 개막식 초청공연. 이번 연극제의 타이틀인 '아라홍련'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자신의 예술을 지키기 위해 인고하며 인내의 시간을 겪은 연극인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몸부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흥적인 국악연주와 무용수, 그리고 미술이 만나 만들어낸 살아있는 추상화이며, 하나의 아름다운 대서사시이다.

